



NEWS LETTER

2019년 7월 15일 Vol. 348

2019년 감염관리 주간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표준주의! 감염전파의 고리를 끊다!’를 주제로 감염관리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표준주의!’란 혈액 및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점막 등 오염된 것을 주의하는 것으로, 병원 내 감염원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본적인 주의 지침이다.

이번 행사는 직원 및 환자, 보호자 등 병원 내원객들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감염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시행됐다.

2019년 감염관리 우수부서로 영상의학과와 62병동, 심장기능검사실이 선정됐으며, 손 위생 우수직원은 심장혈관내과 김용석 교수 등이 선정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은 “감염관리는 모든 부서가 다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철저한 감염관리 활동을 통해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직원 불자 연우회, 수덕사 의료봉사 진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 연우회는 지난 7월 7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수덕사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지도법사 덕유스님을 비롯해 연우회장 및 진단검사 의학과 채석래 교수,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 신경과 김광기 교수 등 연우회 회원 30여 명 참여했다.

연우회 봉사자들은 견성암과 정혜사 70여 명의 스님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했으며, 양·한방 협진으로 침 치료와 물리치료, 수액 투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연우회는 앞으로도 의료 자비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생일법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6월 27일 원내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상반기 생일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는 지도법사 덕유스님이 그동안 병원 곳곳에서 봉사로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덕유스님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도와 법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은 부처님의 제자와 같다.”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모든 구성원은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생일법회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알리미

스님들의 병원 이용 편의를 위한 대기 및 휴게 공간

위치 ▶ 4층 건강증진센터 내

이용시간 ▶ 07:30 ~ 16:20(평일)

편의시설 ▶ 안마의자, TV, 해우소

